

고규홍의 ‘나무 생각’



나무는 어떤 꿈을 꾸나요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나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청자로부터 생동맞은 질문을 받았다. “나무에게도 꿈이 있나요? 있다면 나무는 어떤 꿈을 꾸나요?”

뫼뫼의 질문이었다. ‘나무의 꿈’이라니,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나무에서 사람살이의 무늬, 즉 인문의 향기를 찾으려 애만큼하는 나의 작업에 ‘알맞춤한’ 질문을 찾아낸 배려였을 테다. 나무를 사람과 더불어 사는 생명체로 받아들이면서 나무도 사람처럼 꿈을 꾸느냐는 질문을 끌어낸 것이다.

나무의 꿈! 생방송이어서 순발력 있게 대답해야 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선 꿈이란 대관절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능히 할 수 있지만, 여태다 이루지 못한 것을 일쑤 ‘꿈’이라고 말하곤 한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 시작하는 출발선에 설 때면 이번에만큼은 꼭 이루겠다고 마음먹는 목표를 갖게 되고 그걸 사람들은 꿈이라고 한다.

나무의 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무가 할 수 있지만 여태다 이루지 못한 것,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루어야 할 것, 나무의 꿈은 바로 그것이라리.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 나무 역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다. 뿌리를 내리고 어린 싹을 틔우는 순간부터 나무는 그 목적과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 꿈틀거린다. 뿌리는 곧바로 축축한 땅을 파고들어가 물을 빨아들이고, 지상의 이파리는 공기구멍으로는 이산화탄소를 끌어모으며, 잎 표면의 엽록소는 내리쬐는 햇살을 받아들인다. 지상의 모든 생명의 양식이 될 양분을 지어내는 일은 그렇게 식물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바로 광합성이다. 이 땅의 어떤 생명체도 흉내 낼 수 없는 신비로운 그 일만큼은 나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나무는 수국이 양분을 지어 꽃을 피운다. 겉으로 드러나는 나무의 현저한 특징이다. 꽃을 피우는 것은 자손을 번식시키고 나무가 자기 종족의 생존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다. 화려하게 피어난 꽃은 이제 꽃가루받이를 이뤄야 한다.

사람으로 치면 혼인이다. 가장 강한 유

전자와의 만남, 즉 성공적인 혼사를 이루려면 곤충의 수고를 빌려야 한다.

나무는 그래서 자신의 혼사를 이뤄 줄 곤충을 위한 양식까지 마련해야 한다. 꿀과 꽃밥은 꽃의 혼인을 도와주는 매개 곤충에 대한 나무의 적절한 보상이다. 결국 나무는 꽃 피우는 데에 필요한 양분 이상의 양분, 즉 매개 곤충의 양식까지 지어야 한다. 그레도 중요한 절차가 남았다. 혼사를 마친 뒤에 맺은 씨앗을 멀리 날려 보내야 한다. 어미와 경쟁해서는 살아남기 어려울 뿐 아니라, 더 넓은 생존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무는 씨앗을 멀리 보내야 한다. 씨앗은 바람결을 타고 날아갈 수도 있고, 새나 짐승의 먹이가 되었다가 그들의 배설물을 타고 빠져나온 자리에 새보금자리를 이룰 수도 있다. 역시 나무 스스로 완결할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보면 나무살이의 성공적 실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생명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홀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다른 생명체 없이 나무는 살 수도 없고, 더더구나 자손을 번식시키며 종족을 유지하는 존재의 목적을

실현할 방도가 없다. 벌과 나비가 건강해야 나무도 훌륭한 혼사를 이룰 수 있고, 새와 짐승이 튼튼해야 자신의 씨앗을 멀리 보내 생존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나무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즉 지상의 모든 생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양분을 짓는 일에 매진한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일이다. 그건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이다.

말없이 홀로 살아가는 생명체이지만, 나무는 더불어 살지 않을 수 없는 공생의 생명체다. 나무가 새로 다기를 계절을 맞이하면서 꿈을 꾸다면 그건 무엇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더불어 풍요롭게 살아가는 일, 즉 공생의 생명 세상을 실현하는 일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고작 달력의 숫자 하나만 바뀔 뿐이지만, 누구라도 새로운 꿈을 설계하게 마련인 시절이다.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지만 아직 채 이루지 못한 일, 그건 곧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이 땅의 모두가 꿈꾸는 새해에 꼭 이뤄야 할 가장 절박한 꿈이다.

〈나무 칼럼니스트〉

기고



조영택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상근부위원장 겸 사무총장

‘관중 48만 명, 미디어·방송 1611곳, 선수·임원 등 5500여 명, 마스터즈 등록 1만2000여 명...’

지난 7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지구촌 수영축제에 참여했던 관람객과 선수, 미디어 수 등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중국 하이난(海南)성 산야(三亚)시에서 개최된 국제수영연맹(FINA) 갈라 및 포럼 행사에서다.

마스터즈 대회 참여 기록만 놓고 보면, 이탈리아 리치오네(1만2671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스잔토 에바(Szanto Eva) 조직위 사무총장은 성공 요인으로 주요 관공지 등에 경기장을 만든 점을 꼽았다. 세계적 관광도시인 부다페스트는 영상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했다. 스포츠(수영대회)를 역사와 문화로 녹여냈다.

평화·문화와 함께하는 광주세계수영대회

도시 브랜드와 자연 경관까지 고려해 경기장을 역사성 깊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에 집중 배치했다. 하이다이빙 경기장으로 사용된 다뉴브강가의 국회의사당 건물과 개·폐막식 등 문화행사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다. 대회 컨셉과 개최 전략이 중요한 이유다.

2019년 광주가 인류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평화’다. 광주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다. 광주에서 올려 퍼질 세계 인류 평화의 메시지는 또 다른 감동을 전사할 수 있다. 이는 수영선수권대회 슬로건인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에 잘 드러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광주에서 인류 평화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하는 열원’을 담았다. 스포츠가 추구하고 있는 인류 평화의 정신을 우리 광주 정신과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슬로건은 대중들에게 대회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북한 선수단의 참가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스포츠라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난 1971년 미국과 중국이 평풍 외교로 국교 정상화의 물꼬를 텃던 것처럼 남북 관계 해빙의 단초를 제공

할 수도 있다. 대회가 열리는 2019년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북한은 FINA 회원국이다. 다이빙 강국으로 지난 2015년 러시아 카잔 세계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올해 부다페스트대회에서는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하나씩 땀다.

또한 문화와 스포츠를 결합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다. 지난 2007년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해 운영되고 있으며, 비엔날레와 디자인비엔날레가 매년 열리고 있다. 개·폐회식 등 다양한 문화행사에 이 같은 도시 정체성이 스며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누구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 개최가 목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4대 메가 스포츠 이벤트로 평가받는다. 하계·동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대회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선수권대회(2019년 7월 12~28일)와 마스터즈 선수권대회(7월 29일~8월 11일)에는 전 세계에서 2만여 명이 이상이 참여한다. TV 시청자는 10억 명 이상에 달한다. 광주의 정신과 문화가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2019년은 광주에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지구촌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FINA와 주요 경기장 장소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점은 고무적이다. ‘평화·문화 수영대회’를 위해선 전 세계에 도시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부다페스트가 이를 증명한다.

지난달 광주를 찾은 FINA 대표단과 2박3일간의 현장 방문 및 마라톤 회의를 통해 수구는 남부대 운동장(당초 진월테니스장),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운동장(당초 광주시정)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무등산 자락의 품에 안긴 조선대 운동장에서선 광주시내 뿐만 아니라, 5·18 민주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5·18광장, 전일빌딩, 아시아문화전당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광주는 2015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 스포츠 행사가 도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 전 시민적 에너지를 모아 분열과 갈등을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갈 에너지로 삼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이 전 세계인의 뇌리와 가슴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위원회부터 땀했다.

의료칼럼



김수관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장

기능적·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양악 수술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있거나 그 길이가 이상적인 비율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구강-안면 기형을 가진 환자는 얼굴 모양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물론 잇니와 아랫니가 서로 비정상적으로 맞물리거나 아예 맞물리지 않는 부정교합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외에 씹는 기능 장애, 발음 장애, 턱 관절 장애 등 다양한 기능 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악교정 수술을 통해 골격의 위치를 바로잡게 되면 정상적으로 개선된 얼굴의 모습을 얻을 수 있고, 치아의 교합기능도 정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악교정 수술에는 간과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가장 흔한 합병증에는 심한 출혈이다. 이 외에도 신경 손상, 턱뼈 골절, 코골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악교정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 아랫턱 혹은 위턱 중 한 곳만 수술을 하는 편악 수술, 위턱과 아랫턱을 모두 수술을 하는 양악 수술이 있다. 얼굴의 심미성 분석, 악골의 기하학적 형태 및 구조 분석, 구강 건강 상태 및 교합 분석과 구강 기능의 분석 등을 통한 전체적인 진단이 선행된 후에 치료 방법이 결정된다.

치아 교정만으로도 개선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악교정 수술까지 시행한다. 정확한 진단과 결과 분석 후 위턱과 아랫턱 중 어디를 얼마나 수술할지, 치아 교정은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치료 계획이 결정된다.

전행적인 악교정 수술과 치아 교정 치료는 ‘수술 전 교정-악교정 수술-수술 후 교정’의 3단계로 이뤄진다.

악교정 수술 전에 시행하는 치아 교정은 수술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악교정 수술을 시행할 때 뼈뿔뿔한 치아로 인해 수술 중 위턱과 아랫턱뼈를

원하는 위치에 두기 어렵다.

악교정 수술 전 치아 교정 치료를 통해 뼈뿔뿔한 치아를 적절하게 재위치시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또 악교정 수술 전 치아 교정 치료를 통해 수술 후에 위턱뼈와 아랫턱뼈가 이동된 위치에서 윗니와 아랫니가 잘 물릴 수 있게 미리 배열을 해 둔다. 수술 전 교정 치료가 완료되면 위턱과 아랫턱을 계획된 위치로 이동하는 악교정 수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수술을 통해 아주 정밀한 교합 관계를 만들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위와 아래 치아가 잘 맞물리고 편하게 잘 씹을 수 있도록 악교정 수술 후에도 치아 교정을 하게 된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 계획, 그리고 구강 악안면외과, 교정과, 마취과 등의 전문가들 간의 긴밀한 협조가 있다면 악교정 수술을 통해 더욱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社說

윤 시장의 광주공항 통합 이전 결단 환영한다

윤창현 광주시장이 무안공항 활성화 대책으로 광주 군(軍)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남이 군 공항을 받으면 민간공항을 주겠다는 조건부식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민과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전향적 해법 모색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윤 시장은 그제 간부회의에서 “미래로 가는 데 있어 광주·전남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의 관계, 산업 지형 등을 고려한 광주공항 이전 문제”라며 “민간 공항 기능 이전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 공항이 다 가면 그때 (민간 공항을) 주겠다는 것은 미래 비전이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15개 국제노선이 있는 대구공항과 잡초만 무성한 무안공항을 비교하면서 일본이나 중국을 오가는 지역민들이 인천공항 등을 이용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현실도 거론했

다. 이는 대기업이나 해외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광주공항의 이전은 지난 2007년 무안공항이 개항하면서 이미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이듬해 무안~광주 고속도로까지 개통돼 접근성이 30분대로 크게 개선됐지만 이용객 편익과 항공 수요를 앞세운 광주시의 반대로 국제선만 이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윤 시장의 언급은 그동안 광주시가 견지해 온 분리 이전 방침에서 크게 진전된 것으로, 지역 내 반발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하면 ‘통 큰 결단’이 아닐 수 없다. 통합 이전은 답보 상태인 무안공항 활성화와 광주 군 공항 이전을 동시에 해결하는 상생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추 공항으로 육성하면 광주의 자동차·에너지산업 경쟁력도 크게 높일 수 있다. 윤 시장의 주문대로 광주시가 미래 전년을 기억할 수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전국의 장애인들이 최근 서울 종로구 ‘전태일 다리’에 모여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했다. 전국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최저임금법 제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1만 원을 목표로 한 최저임금의 인상 등 서민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 임금, 특히 중증 장애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제자리 상태에 머물러 상대적 박탈감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2016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장애인 근로자 평균임금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수준인 데다 비정규직 비율은 60%를 넘는다. 중증장애인의 상황은 더 나쁘다. 중증장애인이

로자의 평균 시급은 2012년 2790원에

서 2016년 2896원으로 5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들에게 내년 시급 7530원은 꿈같은 얘기이다. 복지 국가는 약자와 장애인이 배려받고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말한다. 누구나 산업 현장에서 혹은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사회의 책무이자 불쌍한 사람에 대한 시혜가 아니다.

유엔(UN) 장애인위원회도 지난 2014년 우리 정부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장애인을 제외하고 되다’는 조항의 삭제와 대안 마련을 권고했다. 우선 일반인과 동등한 최저임금은 아닐지라도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도록 적정 시급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절실하다.

장기적으로 고용주는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되 노동력 저하에 따른 손실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길거리나 카페에서 자주 들을 수 있던 올해 히트곡 윤종신의 ‘홍니’를 접하고 오랜만에 그의 옛 노래를 떠올렸다. ‘015B’ 객원 보컬 시절에 불렀던 ‘팅빈 거리에서’를 시작으로 ‘오래된 그날’, ‘나의 결혼식’ 등 한 때 많이 들었던 곡들이다.

헤어진 여자에게 전하는 절절한 가사는 윤종신 노래의 트레이드 마크인데, 가사와 멜로디가 그 때 그 노래들과 비슷한 2017년 신곡 ‘홍니’의 감성이

고 있는 ‘천년의 상상’과 문학평론가 정여울이 함께하는 ‘월간 정여울’이다. ‘깊이는 간직하고, 독자에게 가볍게 다가갈 방법을 찾다 기획한’ 프로젝트다.

정 작가는 잃어버린 감수성을 깨우려는 12개의 의상·의태어를 주제로 내년 1월부터 매달 한권씩 책을 낸다. ‘꼭꼭-수줍은 마음이 당신의 삶에 노크하는 소리’, ‘쿨룩쿨룩’, ‘까르륵 까르륵’, ‘와르르’, ‘달그락 달그락’ 등을 소재로 130쪽 안팎의 책을 펴낸다. 글을 함께

매월 화가들이 새로운 그림을 선보이고 타이포그래피스트가 의상어·의태어를 시

월간 윤종신과 정여울

윤종신은 지난 2010년부터 매달 새로운 곡을 만들어 발표하는 프로젝트 ‘월간 윤종신’을 진행중이다. 내년이면 100여 곡에 육박하는 그의 곡들은 유튜브 ‘월간 윤종신’ 채널에서 만날 수 있다.

윤종신은 한 인터뷰에서 매달 곡을 발표하는 게 “작곡의 엄숙주의와 비장함을 중시하는 사람은 아마 못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의 색다른 도전 덕에 우리가 들을 곡은 풍성해졌다.

출판계에서도 한 작가가 매달 한권의 책을 내는 프로젝트가 시작돼 눈길을 끈다. 의미있는 책들을 꾸준히 펴내

각적으로 묘사한 글씨로 표지도 꾸미게 된다.

소설 관련 글을 시작으로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등의 여행 에세이, 그리고 문화와 심리학을 결합한 치유 에세이 등 성실하고 매력적인 글쓰기로 독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정여울의 실험이라 더 기대되고 반갑다.

하나의 의태어나 의성어로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전해줄 ‘월간 정여울’은 어쩌면 우리의 감성과 감수성을 일깨우는 작은 선물이 될 지도 모르겠다.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